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아이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 주도록 했어요. 남부 불교에서는 스님에게 공양을 대접할 때 발을 직접 씻겨드리는 모습에서 착안해서 시도해 봤죠. 생각보다 보살행 실천의 개념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고 스님인 저도 감동적이었어요.”

“뭘니 뭘니 해도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필요해요. 누가 뭐래도 여름에는 팔빙수가 최고죠. 재료 준비나 만들어 먹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해서 저희는 매년 하고 있어요.”

“팔빙수는 저희도 해요. 정말 반응이 좋죠?”



6월 4~5일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열린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만다라 그리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 뭘니뭘니해도 아이들에겐 재미가 필요

“올 여름불교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라는 공통 화두는 어색했던 분위기를 금세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어린이 법회 지도자들의 경험담과 사례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여름방학을 한 달 앞두고 6월 4~5일 충남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 어린이 지도자 400여 명이 모였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계성)와 동련(이사장 심산)이 개최한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는 어린이 지도자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행사에서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은 불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

다. 참선과 염불, 발우공양 등 전통적인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회 프로그램에 생태나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종합수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오랜 시간 어린이포교 현장에서 활약한 100여 지도자들은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기획회의를 열었다. 베테랑 어린이법회 지도자답게 특색 뒀는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림그리기를 통한 미술치료, 도반의 발을 씻겨주며 보살행 실천하기, 팔빙수 등 여름철 간식 만들기 등 공통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이색적인 경험담도 많았다.

10년 넘게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온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배운정 씨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여름불교학교 기획서를 타 사찰에서 온 팀원들과 회합하며 노하우를 나눴다.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 했던 한 여름 밥 귀신놀이는 팀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배 지도사는 “불교동화를 무섭게 구연하거나 귀신놀이를 했다. 귀신과 밤이 주는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살려 공포와 두려움을 상형연출합니다. 이 때 진언을 통해 이겨내도록 해 아이들에게 진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봤다”고 말했다.

문운사 어린이법회 일석 스님도 “연못 안에 번호를 매긴 조약돌을 넣어 어린이들이 물놀이 후 건져낸 조약돌 번호에 따라 기초교리 퀴즈를 풀었다. 평소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버리지 않고 모아 발원문을 적은 후 답을 쌓는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다”고 소개했다.


지도자들은 폐지를 활용한 발원탑 쌓기와 연못놀이를 접목해 ‘지혜를 건너라’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연수회는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의 ‘쉽 없는 정진, 수행의 첫 발’ 강의를 시작으로, 연수 참가 4년차 이하와 이상 2개 반으로 나뉘어 동련 이사장 철우 스님의 ‘수행의 즐거움, Let’s go 불교!’와 조계종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범 스님(옥천암 주지)의 ‘나는 불자다, 우리들의 여름불교학교’ 강의가 진행됐다.

철우 스님은 강의에서 “불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행위는 포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 가르친다는 필요가 없다”며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도반으로 그들이 나를 가르치고 제도한다고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연수회에서는 조계종 5대 결사 항묵인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로 여름불교학교에 접목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수행 결사는 서원 세우기와 매일 수행하기라는 세부 실천지침에 따라 ‘사경과 사불’을 문화 결사는 우리 문화재 바로알기 실천지침에 따른 ‘석가탑 만들기’, 생명 결사는 친환경운동의 생활화를 실천지침으로 삼은 ‘중이화분 만들기’, 나눔과 평화 결사는 ‘자신을 찾는 만다라 그리기’ 등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온 장정희 씨(미국 불타사 자모회장)는 “사찰 내에 어린이한글학교를 운영하던 중 어린이법회 개설을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해 참가했다”며 “여러 강의 중 찬불동요와 만다라그리기 등 체험프로그램은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은 천진불을 기르는 어린이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심을 꼽았다. 뜨거운 신심을 어린이포교를 향한 열정으로 옮겨,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불심을 심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어린이지도자들은 부처님의 손과 발, 눈빛과 미소, 마음이 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고 가꾸어야 할 대승보살들입니다. 그 원력이 무르익어 훗날 성불에 이르도록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대원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심산 스님은 “매년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천진불 결사로 돌아갈 것이라 희망으로 연수회를 준비하고 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배워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린이지도자들이 있기에 한국불교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자부심으로 포교해 달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여름 수련회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면과 스스로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원 기자



어린이 지도자인 스님과 재가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동련이 개최한 행사에는 400여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